

## 한국 전통음악학과 새로움

이진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조교수

2005년 한국 전통음악학계에서는 한국국악학회가 처음으로 악율학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고악기연구회가 『민족악기연구』 저널을, 판소리연구회가 판소리 자료 집성 전문지 『판소리명창』을 창간하여 발행하여 한국 전통음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신설되었다.

한국전통음악하면 새로움과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세상이다. 그것은 아마도 전통적이라는 요소가 분명 새로움과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5년 한국 전통음악학의 움직임에 따라 가본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새로움도 낯선 단어가 아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바로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 전통음악학계의 매우 활발한 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새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05년의 한국 전통음악학계를 짚어보았을 때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표면적인 사실이 있다. 1948년에 창설되어 오늘날까지 한국 전통음악계를 선도한 한국음악학계가 새로운 회장 황준연 교수를 선출하여 처음으로 맞는 한 해라는 것과 한국국악학회와 함께 한국음악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음악사학회의 학술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한국 전통음악학계 학술등재지가 되었다는 것에서 이러한 새로움을 읽어낼 수 있다.

### 전통음악학 관련 학회의 다양한 활동

새로운 회장 체제에서 한국국악학회는 5월 28일 분기 발표회를 통해서 요즘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정간보 시가 해독과 관련된 「옛 정간보의 시가 해석」(황준연) 등을 비롯하여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문제 의식을 가진 4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학회 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연이어 <2005 상반기 국악학 정기학술대회>가 한국음악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음악의 미의식'을 주제로 6월 26일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개최되었다. 한명희 교수의 기조발표 「한국음악에서의 미의식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이회경, 박소정, 성기련 등의 학자들이 한국음악과 미의식에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한국 전통음악 미학 정립의 길을 조

명하기에 이르렀다.

하반기에 들어서 한국국악학회는 세계전통음악학회 한국지부와 함께 <광복 60주년 기념 한국음악 국제학술대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Musicology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Independence)>를 '한국음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7월 1일에 개최했다. 한양대 권오성 교수는 「한국음악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음악학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였으며, 이인숙, 박은옥, 송혜진, Koki Fujii, Yamamoto Hanako, Millie Creighton, 장윤희, R. Anderson Sutton, 로버트 프로바인 등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하여 한국 음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였다. 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던 로버트 프로바인은 한국 음악학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 발표한 바 있는데, 그가 우리의 음악학계를 일본음악학과 비교하여 다각도로 조명하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된다.<sup>1)</sup>

<<(사) 한국국악학회 8월 학술대회>>에서는 '옛 정간보의 시가', '북한의 산조음악'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월에 열린 학술대회의 논의를 확장시켰다. 한국국악학회는 10월 1일 <2005 난계학술세미나>도 주관하였다. 난계 박연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학술세미나에서는 권오성 교수의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의 당위성」을 기조연설로 하여 현경채, 이정희, 손인에, 신은주, 위주영 등의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한국국악학회의 학술대회는 <제1회 동아시아 악율학회>로 한국 악율학(樂律學)이라는 학문 영역을 새롭게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학술대회였다. 11월 11일부터 이틀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본

학술대회에서는 전 학회장이었던 권오성 교수가 한국 악율학의 자료를 중국의 진응시, 정영달 등 교수에게 전달하여 한, 중 악율학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권오성 교수의 「한국 악율학 유희(柳禧)의 『악율관견변』 고(考)」, 중국 최헌 교수의 「증후을중명(曾侯乙鐘銘) '화'에 대한 탐미(探微)」, 중국 진응시 교수의 「고대 중국과 조선의 악율도해(樂律圖解)」, 중국 정영달 교수의 「중일 악율조(樂律調)의 비교연구 1」 등을 비롯하여, 일본 엔도 도루 교수의 「일본에 있어서의 당악이론의 수용과 변용」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음악사학회에서는 2005년 5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북대에서 '전라도 지역 음악사'를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 2005년 음악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한국음악사학회의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의 음악사학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음악사도 지역 중심적인 음악사 서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음악 이론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지역 중심의 대학과 공동으로 각 지역 음악사 서술을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위 학술대회에서는 황미연, 권도희, 남상숙, 임미선 등의 음악학자들이 전라도 지역의 음악사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전라도 지역의 판소리, 불교음악, 풍류 등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자유 주제로 대한제국기의 음악을 다룬 송방송 교수의 논문과 한국 음악의 녹음사를 재조명한 필자의 글도 발표되었다.

판소리학회에서는 2004년에 이어서 판소리 다섯 바탕의 현대적 수용과 체계적인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2005년 1월 14일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

1) 이진원, 「광복 60주년 우리 음악계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몸』, 서울, 2005, 8월호 참조.

승과 재창조'라는 주제로 <심청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었으며, 4월 16일부터 이틀간 <제49차 학술대회>에서는 고창 판소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5월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50차 학술대회>에서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라는 주제로 <수궁가>가 다루어졌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51회 학술대회>에서는 <흥보가>를 주제로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판소리학회의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통해 현대 판소리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으며, 미래의 판소리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올해 판소리 연구 분야에서는 이주 주목할 만한 잡지가 발표되었다. 소위 판소리 자료 집성 전문지를 표방하고 나선 『판소리명창』(창간호)이 그것이다.

국악음반박물관의 노재명 관장이 조직한 판소리연구회에서는 학술적인 활동보다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한 전문지 『판소리명창』을 발간하여, 판소리 관련 논문, 평론, 수필, 증언, 대담, 목록, 문헌, 고음반, 사설, 인쇄물, 악력, 취재, 조사, 사진 등을 포괄하여 정리 발표하고자 하였다. 판소리연구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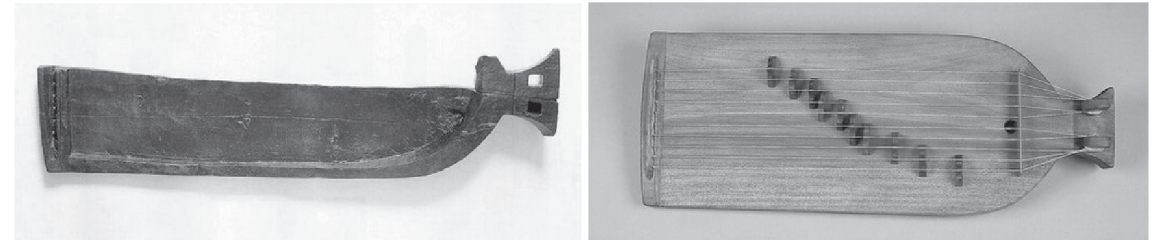
한국민요학회는 한국음악 전공 학자인 김영운 교수가 회장으로 있으며, 기존의 민요 연구에 있어서 활동적이지 못했던 한국음악 이론 전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악 연구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최근 한국민요 연구의 메카로서 인정받고 있다.

한국민요학회는 5월 21일 <제36차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숙희의 「서부경남에 전승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음악적 고찰」, 김보희의

「고려인 전래민요의 전승현황과 변천연구」, 홍순일의 「도서지역 민요와 문화관광」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8월 19일에는 <14차 하계발표대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도 김혜정의 「초등 국악교육을 위한 유희요의 음악적 특성과 분포 연구」, 김영운의 「농요 메나리의 분포 양상—용어 '메나리토리'의 재검토 제안을 겸하여」, 손인애의 「토속민요 배꽃타령 연구」, 강등학의 「중국 호북성·안휘성 일대의 민요」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2월 3일에 열린 <37차 발표회>에서는 이소영의 「일제강점기 통속민요와 신민요의 관계성 고찰」, 최은숙의 「학교교육을 통한 지역민요 전승의 현황과 방향」, 강등학의 「<땅다지는 소리>의 지역적 판도와 노동요적 성격」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본다면 올해 한국민요학회에서는 민요와 교육, 그리고 민요의 음악적 연구가 주요한 연구 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보형 회장의 한국고음반연구회와 한국통소연구회도 각기 올해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고음반연구회는 한국 음반을 소재로 하거나 주요한 주제로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보형 회장은 「휘모리잡가 <사립쓰고>의 음반 연구」에서 기존에 알려진 휘모리잡가가 아닌 새로운 휘모리잡가를 발견하여 보고하였으며, 김인숙은 북한의 음원으로 소개된 <배뱅이굿>의 음악을 연구한 「북한 전승 <배뱅이굿> 연구」를, 필자는 한국 현대음악사의 하나로 재즈를 진단한 「한국 초기 재즈를 말한다」를, 그리고 손인애는 「서도 민요 <개타령> 연구」, 이준희는 「가요곡 <춘향전>의 음반사적 의미」를 발표하였다. 한국통소연구회의 <제3회 학술대회>에서는 이보형 회장과 동선본, 필자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학회 사업으로 한국 고대 악기의 연구 및 복원을 중심 사업으로 하는 고악기연구회에서 「민족악기 연구」라는 학술지를 창간한 것이 주목된다.

판소리학회의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승과 재창조'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통해 현대 판소리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었으며, 미래의 판소리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시도할 수 있었다.



신창동 출토악기(좌)와 복원악기(우) © 2005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 활동

위와 같은 전통음악학 관련 학회의 다양한 활동 외에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음악학 연구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립국악원에서 올해 야심차게 기획한 <제9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고대한반도문화 교류사-악기를 중심으로'는 올 한국 전통음악계의 새로운 화두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필자가 「몸」지에 기고한 「요즘 고악기(古樂器)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글에서도 살펴본 바 있지만 이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관련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중일 3국의 고대 악기들의 교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최근 속속 발굴되는 고대 악기, 특히 현악기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고대 악기를 복원·연주하여 오늘날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 한국 전통음악학계의 학술대회 중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sup>

국립국악원의 위 학술대회를 신호탄으로 10월에는 가야세계문화축전 추진위원회와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주최로 '가야금 프로젝트-가야금의 원형과 아시아의 현악기'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숙 교수가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현악기를 앞서 5월 <제1회 고대악기 복원 시연회>에서 복원된 것과 다르게 고증하여 이를 공개한 바 있다. 필자 또한 중국 악기인 쟁과 가야금과의 비교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국립국악원의 학술대회와는 달리 가야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차이 나는 점이다. 12월 4일에는 <제4회 대가야사 학술회의>로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라는 주제로 가야금 창제와 관련된 악성 우륵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역사학, 고고학, 음악학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하여 우륵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토론하고, 가야금의 창제와 그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sup>3)</sup>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도 <제5회 국립민속국악원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향제줄풍류의 전승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심인택, 이숙희, 남상숙, 최문진 등의 발표를 통해 지역 음악의 하나인 향제줄풍류의 사적 고찰 및 음악 분석, 전승 보급 현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었다.

### 대학이나 해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 개최한 한국 전통음악학 관련 학술대회들도 다양한 주제로 전통음악학계에 자극을 주었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는 <제7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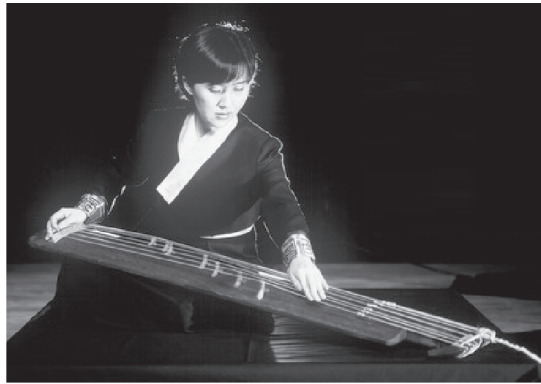
2) 이진원, 「요즘 고악기(古樂器)가 살아나고 있다」, 『몸』, 서울, 2005, 11월호  
3) 「국제 금(琴)교류회 2005 고령」, 『매일신문』(2005. 12. 15)에 의하면 12월 17일 오전 10시 고령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가야금의 현재와 미래, 한국의 가야금', '특수한 장르 악기의 연주 방법과 형식, 중국의 쟁' 등을 주제로 5개국 전문가들의 국제 금 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이 열렸다고 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올해의 주제는 '음악 연희 예술 철학의 연구현황과 그 전망'이었다. 6월 26일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개최된 한국음악과 미의식에 대한 한국국악학회의 학술대회와는 달리 관련 연구 분야의 현황을 점검하고 전망하는 자리였다. 한홍섭, 이상은, 사진실, 박소정, 이창숙, 이토 요시히데 등의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한국, 중국, 일본의 예술철학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그들 분야의 예술철학 연구 동향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서울대에서는 격년으로 국내,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제8회 동양음악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9월 1일 서울대 박물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동양음악'이라는 주제로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인도의 음악학자들이 참여하여 각국의 식민지 시대의 음악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이병원 교수의 「식민지 시대의 음악변화: 세계적 관점과 비판적 평가(Musical Accultur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A Global Perspective and Critical Assessment)」를 기조연설로 하여, 식민지 시대의 음악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 국가의 음악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식민지 속에서의 음악 교육, 새로운 음악의 탄생, 지배국 음악과의 교섭 등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음악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sup>4)</sup>

김해와 고령에서 가야금 관련 학술대회가 열린 것과 같이 정읍에서는 2005년 정읍시예술문화회관 특별기획으로 <신소(神簫) 전추산(全秋山) 명인 첫 추모 논문 발표회>가 열렸다. 황미연의 「추산 전용선 명인의 삶과 예술」, 필자의 「전추산 단소풍류에 대한 음악적 연구」, 이화동의 「추산 전용선의 단소 산조 선율 분석」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단소 명인 전용선의 예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명인 계보학 분야



복원 제작한 월평등 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 2005 국립국악원

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일깨워준 학술대회였다고 생각된다.

해외에서 개최된 한국 전통음악학 관련 학술대회를 살펴보자. 올해에는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가 특히나 많았다.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복건성에서 열린 <아태 민족음악학회 제10회 국제회의(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APSE)>에서 이보형, 권오성, 이용식 등의 음악학자가 참여하여 판소리, 비파 등의 주제의 한국 전통음악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위 학회가 폐막된 뒤 이어서 개최된 <제3회 한중 불교음악 교류 학술대회>에서는 권오성, 최현, 윤소희, 장익선, 이보형, 이용식 등의 음악학자가 한국 불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불교 음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학회는 불교 음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창구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회로 필자와 이보형 한국통소연구회 회장이 참여한 11월 초에 열린 <중국 국제 옥병 소적 학술연토회(中國國際玉屏簫笛研討會)>가 있다. 이 학회는 한, 중, 일 음악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통소 등 관악기의 음악문화를 토론하는 자리였으며, 중국의 관악기 관련 음악고고학적 자료에 대

<제9회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의 관련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중일 3국의 고대 악기들의 교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올해 한국 전통음악학계의 학술대회 중에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학술대회였다.

### 한국 전통음악학계가 풀어야 할 과제

위와 같이 부족하게나마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된 한국 전통음악학 관련 학술대회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러 학회들의 활동과 기관, 단체, 학교의 학술활동을 살펴보면 2005년 한국 전통음악학계가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한국 전통음악계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 첫 번째로 지난해 '종묘제례악 왜곡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대악후보(大樂後譜)』 『속악원보(俗樂原譜)』의 정간보의 해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반도 남부에서 출토된 고현악기의 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 한국 전통음악학계가 주목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렇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올해 한국 전통음악학계에서는 한국국악학회가 처음으로 악율학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고악기연구회가 『민족악기연구』 저널을, 판소리연구회가 판소리 자료 집성 전문지 『판소리명창』을 창간하여 발행하여 한국 전통음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는 두 개의 채널이 신설되었다.

2006년 한국 전통음악학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 정확한 진로를 예상할 수는 없으나 2005년 한해의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음악고고학적인 연구의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국악기학』 『민족악기연구』의 저널들을 통해서 악기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문학 쪽에서 근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고, 한국 전통음악학계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근대 음악사에 대한 다각도의 모색이 진행되어 왔는데, 근대에서 현대로의 전

환이 2006년에 여러 가지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의 국내학술회의가 내년에 개최된다면 근·현대를 아우르는 음악사적 연구가 주제가 될 것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심포지엄에서도 현대 예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현상을 진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요즘 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도구로 사용되는 구술사의 도입도 더욱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술사 연구 및 채록 작업에 대한 깊은 관심은 음악가들의 계보학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민간 음악의 연구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음악에 대한 연구 경향도 계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혹은 지역에 위치한 국악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을 연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가 꾸준히 열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4) 전지영, 「동양음악학 연구와 이데올로기」, 『국악포럼』, 서울, 2005, 10월호에는 본 학술대회와 관련된 리뷰가 실려 있다.